

#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May 2013

cartier.co.kr



## Special Gift Book

세계 건축계의 대모, 필리스 램버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들러 순천 여행  
5월의 신부를 위한 <헤렌 웨딩>

Base Makeup Essentials

*Cartier*  
Panthère de Cartier collection

Benja, Kylie Minogue, The Goddess Edition, 2011



Bruce Foster, Harry Potter, 2010



**전방위 예술 실험**

yBa(Young British Artist)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리암 길릭.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독일관 대표작가로 참여하며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타국의 국가관을 대표했던 그는 지난 25년 동안 미술, 디자인, 출판, 전시 기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동료 작가 및 큐레이터, 평론가들에게 미술의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평가를 받아 영국의 미술 전문 잡지 <아트 리뷰>가 선정한 '세계 미술계 파워 100인' 중 30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리암 길릭의 이번 개인전은 미니멀한 형태의 알루미늄 조각 작품과 헬베티카 폰트로 구성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영국의 민요를 발췌하여 노동요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후렴구를 통해 자본주의 구조와 그 속의 소수 엘리트층을 비판했다. 5월 22일까지. 문의 02-732-4677



Liam Gillick, Shanty Structure C, 2013



COOLRAIN, Dynamic Duo, 2011

**힙합 걸치의 탄생**

요즘 어디를 가나 힙합이 대세인지라 누군가 콜라베이션을 한다 해도 예전만큼 큰 감흥이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조금 색다르다. 다이나믹듀오, 슈프림팀, 프라이머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힙합 아티스트가 모인 음반 기획사 아메바 걸쳐와 가나아트갤러리가 손을 맞잡은 것!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이들의 만남이 궁금하다면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의 <2013 AMOEBAHOOD in Seoul @ GANA ART CENTER>展을 찾아보자. 공연, 그림, 토이 피규어 제작 등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 아메바 걸쳐 멤버들의 노력이 집약되어 있다. 카니에 웨스트가 사랑하는 세계적인 피규어 아티스트 콜레인이 합세한 이번 전시에서는 다이나믹듀오의 피규어가 3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5월 19일까지. 문의 02-720-1020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오랫동안 모아놓은 편지들을 들춰보면 그 사이사이 독특한 모양의 팝업 카드가 꼭 한두 개씩 숨어 있다. 펼치기만 하면 겹겹이 드러나는 종이 속의 또 다른 세계가 어쩌나 신기하고 예쁘던지! 그래서 인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세계 팝업 아트잔>이 더욱 반갑다. 팝업 아트를 미술의 새로운 영역으로 규명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팝업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팝업북은 물론 전 세계 컬렉터들의 희귀 소장본과 한정판, 회화, 조형, 사진, 영상 등 총 400여 점의 작품을 특별 전시한다. 더불어 세계적인 팝업 아트의 거장인 벤자 하니와 미틸드 니베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샤넬, 루이까뜨즈와 콜라베이션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해리포터> 팝업북의 디자이너 브루스 포스터가 내한하여 팝업북 만들기를 직접 지도한다. 5월 19일까지. 문의 02-3143-4360



국제갤러리 내부.

**금이 가고, 부서지고**

스털링 루비는 <아트 앤 옥션>이 선정한 '미래에 가장 소장가치 있는 50인의 작가'로 선정된 스타 작가다. 시카고의 현대미술관, 런던의 테이트 모던 등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을 정도. 로스앤젤레스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 작가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스텔링 루비의 이번 전시는 스프레이 회화 및 도자기와 브론즈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선보이는 연작들은 금이 가고, 부서지고, 상처 난 도자기 조각들을 조형적으로 조합한 것이 특징. 버려진 천, 골판지를 캔버스에 이어 붙인 콜라주도 흥미롭다. 국제갤러리에서 5월 10일까지. 문의 02-735-8449



Sterling Ruby, Debt Basin 2, 2011